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4 pp. 2593-2601,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4.2593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교육요구도

조인영[1*]
[1]동강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In-Young Cho[1*]
[1]**Department of Nursing, Dong K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K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대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의사소통교육요구도 조사결과 대부분의 간호대학생(172명, 83.5%)은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역할극 형태의 수행중심의 의사소통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언어적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r=.408, p<.001),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r=.327, p<.001)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대상자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증진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06 nursing students in K City who were surveyed using self report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0.0. 83.5% of nursing students answere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 was necessary and they preferred practice centered communication education through role-play. A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 foundation to develop efficient communication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Educational Need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며[1], 전문직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간호대학생이 습득하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핵심역량이다[2].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의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3,4], 간호사의 핵심역량 중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4].

간호대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따라 2, 3학년때부터 임

*Corresponding Author : In-Young Cho(Dong Kang Univ.)
Tel: +82-10-4696-5348 email: ciy1024@dkc.ac.kr
Received November 25, 2014 Revised December 31, 2014
Accepted April 9, 2015 Published April 30, 2015

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이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5,6]. 하지만 Idczak(2007)[7]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계층의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Shin & Lee(2011)[8]는 의사소통기술 및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인해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는 대상자와의 신뢰관계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6].

이에 이들이 임상실습 전부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4,9]. Kim(2006)[10]은 간호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치료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달시키는 의사소통능력과도 관련된다고 하였고, 이처럼 의사소통 수행 및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상현장에서도 간호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이 더욱 다양화되고 강화되기를 요구하고 있고[11,12], Kim(2009)[13]이 의사소통교육은 간호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대학교육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고 하였듯이, 임상실습 전부터 학생들이 이러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도록 지도해 주어야하며, 다양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적응하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위한 의사소통교육이 필요하다[13].

현재까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신간호학 등의 교과목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문간호사로서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는 임상상황중심의 의사소통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강의중심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상실습을 위한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에 제한적이다[14]. 이에 임상실습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의사소통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요구도는 현재 상태와 희망하는 상태간의 차이를 구하고 문제점을 찾아 최상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서[15], 의사소통교육 개발에 앞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교육요구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사소통교육 내용과 방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해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증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의사소통교육요구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K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 수행 전의 간호대학생 중,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목적 및 필요성, 방법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206명이다. 연구 대상자 수는 표본수 산출 프로그램 G-power 3.10 프로그램[16]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30으로 계산하였을 때 양측검정에서 표본크기는 134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는 필요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

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한다[17].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Navaran (1967)[18]이 제작한 Primary Communication Skill을 Choi(2004)[19]가 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언어적 의사소통 20문항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5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Choi(2004)[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4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이었다.

2.3.2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의사소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14].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Ayres(2005)[20]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Park & Kwon(2012)[21]가 번안하고, Cho(2014)[1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로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Ayres(2005)[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Park & Kwon(2012)[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이고, Cho(2014)[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6이었다.

2.3.3 의사소통 교육요구도

교육요구도는 현재 상태와 희망하는 상태간의 차이를 구하고 문제점을 찾아 최상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의미한다[15].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교육요구도는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수 2인과, 임상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의사소통능력의 필요성, 의사소통교육의 필요성 정도, 선호교육방법, 의사소통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전략, 의사소통교육 참여의사를 포함한 5문항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구조적 질문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4년 9월 3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미 응답이나 불명확한 설문지 12부(5.5%)를 제외한 206부를 분석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교육요구도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검사인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의사소통교육요구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06명의 대상자 중 20-24세의 대상자가 133명(64.6%)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181명(87.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진학동기는 본인 스스로 선택에 의해 대학에 진학한 대상자가 132명(64.1%)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는 보통(111명, 53.9%)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89명(43.2%)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만족도 역시 보통(101명, 49.0%)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대상자 중 166명(80.6%)이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수행에 대한 두려움 및 긴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itics of Subjects (N=206)

Characterisitics	Category	n(%)
Age	20 >	39(18.9)
	20-24	133(64.6)
	25 ≤	34(16.5)
Gender	Male	25(12.1)
	Female	181(87.9)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Own choice	132(64.1)
	By grade	8(3.9)
	Family recommendation	58(28.2)
	Teacher, friend recommendation	8(3.8)
Major Satisfaction	Satisfy	89(43.2)
	Normal	111(53.9)
	Dissatisfy	6(2.9)
Interpersonal Satisfaction	Satisfy	91(44.2)
	Normal	101(49.0)
	Dissatisfy	14(6.8)
Fear of Clinical Experience	Yes	166(80.6)
	No	40(19.4)

3.2 대상자가 지각하는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척도에 평균 '3.70±0.52점'이었으며,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 중 '언어적 의사소통'은 '3.67±0.48점'이었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3.50±0.52점'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7점 척도에 평균 '5.52±091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N=206)

Category	Mean±SD
Total Communication Abilitiy	3.70±0.52
Verbal Communication Abilitiy	3.67±0.48
Nonverbal Communication Abilitiy	3.50±0.52
Total Communication Self-Efficacy	5.52±0.91

3.3 대상자의 의사소통 교육요구도

대상자 중 145명(70.4%)은 간호사에게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61명(29.6%)은 필요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 중 87명(42.2%)은 의사소통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85명(41.3%)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수행중심의 교육이 108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례중심 교육(90명, 43.7%)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전략으로는 역할극(115명, 55.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영상 54명(26.2%), PPT 32명(15.5%)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63명(79.1%)의 간호대학생이 의사소통교육 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의사소통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는 비언어적 기술의 사용, 임상상황에서 보호자 불만에 대한 의사소통대처법, 어린 환아를 대할 때의 의사소통, 대상자 설명교육에 대한 의사소통 등 이었다.[Table 3]

Table 3.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N=206)

Characterisitics	Category	n(%)
Necessity of Communication skill for Nurse	Very important	145(70.4)
	Important	61(29.6)
	Not important	0(0.0)
Necessity of Communication Education	Very necessary	85(41.3)
	Necessary	87(42.2)
	Unnecessary	34(16.5)
Preferred Education Strategy	Case	90(43.7)
	Practice	108(52.4)
	Lecture	6(2.9)
	Etc	2(1.0)
Perceived Effective Education Method	Role play	115(55.8)
	Video	54(26.2)
	PPT	32(15.5)
	Internet	3(1.5)
	Etc	2(1.0)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 Participation Decision	Yes	163(79.1)
	No	43(20.9)

3.4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교육요구도 따른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나이(F=3.920, p=.022)와 대인관계만족도(F=14.192,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요인에 대해 Scheffè 검정을 한 결과, 대인관계에 '만족(3.92±0.43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3.55±0.50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와 '불만족(3.32±0.59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나이(F=3.590, p=.030), 전공만족도(F=13.421, p=.000), 대인관계만족도(F=9.306, p=.000),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t=4.392, p=.0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요인에 대해 Scheffè 검정을 한 결과, 전공만족도에 대해서 '만족(5.87± 0.72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5.31±0.94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그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불만족(4.15±0.36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높게

Table 4.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by Subject's Characteristics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N=206)

Variable	Category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	*20>[a]	3.46± 0.51	3.920	5.28± 0.78	3.590
	20-24[b]	3.75± 0.46	(.022)	5.48± 0.94	(.030)
	25≤[c]	3.78± 0.66	b>a	5.91± 0.81	c>a
Gender	Male	3.69± 0.64	3.394	5.98± 0.75	2.045
	Female	3.70± 0.50	(.067)	5.45± 0.91	(.155)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Own choice	3.70± 0.55		5.62± 0.91	
	By grade	3.67± 0.35	0.822	5.51± 0.85	1.502
	Family recommendation	3.75± 0.49	(.484)	5.32± 0.93	(.216)
	Teacher, Friend recommendation	3.39± 0.28		5.12± 0.38	
Major Satisfaction	*Satisfy[a]	3.78± 0.51	1.353	5.87± 0.72	13.421
	Normal[b]	3.64± 0.52	(.261)	5.31± 0.94	(.000)
	Dissatisfy[c]	3.62± 0.56		4.15± 0.36	a>b>c
Interpersonal Satisfaction	*Satisfy[a]	3.92± 0.43	14.192	5.80± 0.74	9.306
	Normal[b]	3.55± 0.50	(.000)	5.38± 0.98	(.000)
	Dissatisfy[c]	3.32± 0.59	a>b	4.71± 0.66	a>b
			a>c		a>c
Fear of Clinical Practice	Yes	3.72± 0.47	0.352	5.39± 0.84	4.392
	No	376± 0.61	(.704)	5.94± 1.05	(.014)
Necessity of Communication skill for Nurse	Very important	3.75± 0.55	3.737	5.63± 0.86	5.833
	Important	3.58± 0.41	(.055)	5.25± 0.97	(.017)
Necessity of Communication Education	Very necessary	3.75± 0.54	0.648	5.63± 0.88	3.926
	Necessary	3.63± 0.43	(.586)	5.26± 0.85	(.010)
	Not necessary	3.53± 0.67		5.23± 0.97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 Participation Decision	Yes	3.69± 0.53	0.209	5.54± 0.86	0.788
	No	3.74± 0.47	(.648)	5.45± 1.07	(.376)

*Post hoc: Scheffè test.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만족도에서 '만족(5.80±0.74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보통(5.38±0.98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그리고 '불만족(4.71±0.66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에게 있어 의사소통능력의 필요성(F=5.833, *p*=.017)과 의사소통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F=3.926, *p*=.010)에 따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3.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상관관계

대상자의 언어적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r=.408, *p*<.001),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r=.327, *p*<.001), 언어적 의사소통능력과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r=.616, *p*<.001)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5]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N=206)

	Verbal Communication Skill r(*p*)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 r(*p*)	Communication Self-Efficacy r(*p*)
Verbal Communication Skill	1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	.616 (<.001)	1	
Communication Self-Efficacy	.408 (<.001)	.327 (<.001)	1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증진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70±0.52점'이었으며, 이는 Park & Choi(2009)[5]의 연구에서 5점 척도 3.56점, Ji, Bang & Jeon(2013)[1]의 연구에서 3.51점, Lee 등(2013)[22]의 연구에서 3.3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높은 결과이다. 하지만 이는 사용된 도구와 연구대상의 학년이 상이하여 단적인 비교가 어렵고,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 경험이 부족한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한 자가보고 점수이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있어 신중을 가해야할 것이며, 이에 추후 임상실습 전과 후의 학년별 의사소통능력을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 중 '언어적 의사소통'은 '3.67±0.48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3.50±0.52점'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Won & Shin(2008)[2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간호대학생들은 보통 정규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비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Park & Choi(2009)[5]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조기에 다양한 대상자와의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므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24], Idczak(2007)[7]이 간호대학생들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대인관계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듯이,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더불어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7점 척도에 '5.52±0.91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Bong(2013)[4]의 연구에서 나타난 3.7점보다 높은 결과이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이미 수강한 학생들로서, 교과목 이수 여부가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소통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의사소통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신념 및 확신으로서[14], 선행연구에서 학생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및 임상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례가 제공된 교육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다는 연구결과처럼[12], 임상실습 전 저학년부터 상황중심의 체험형 의사소통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4].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향후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임하거나 졸업 후 간호사로 임하면서 대상자들과의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 및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과목수업 및 임상실습과도 관련되며,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함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임상상황에 대한 폭넓은 지식함양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대상자와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및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교육은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지식전달에 그치는 한계를 보고하였고[23],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교육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간호사의 핵심역량으로서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교육의 필요성 역시 매우 높게 느끼고 있어 의사소통 교육요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Cho(2014)[12]의 연구에서 50%이상의 간호대학생이 의사소통교육을 매우 필요로함을 나타낸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직접 학습에 참여하고 체험해보는 수행중심의 교육을 선호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교육의 전략으로 역할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극은 학생들로 하여금 임상상황과 유사한 실제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의 경험을 제공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교육하는 방법으로서[17], Dawood & Eman(2013)[25]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할극 활용을 제안하였고, Song(2006)[6]도 병원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역할극 실습 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행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하고, 그들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해 새롭게 통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26].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이는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Constantine(2001)[27]과 Kim(2006)[1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인지적 능력이 자유롭게 발휘되어 더 높은 수행능력을 발휘함을 언급한 Park & Kweon(2012)[2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며,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의사소통에 더 잘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학부과정에서부터 실무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활동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교과과정을 통한 꾸준한 의사소통교육이 필요하며[28], 간호대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교육과정개발이 필요하다[4]. 이와 더불어 발전하는 보건의료영역에서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임상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사례 중심의 의사소통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면, 상호간의 경험과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게 됨으로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2].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간호대학생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대학생들의 교육요구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성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행중심의 의사소통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임상실습 전 핵심역량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의사소통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교차원의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의 원활한 대인관계 및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서, 간호대학생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증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간호대학생은 수행중심의 역할극 형태의 의사소통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사로서의 핵심역량에 해당되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대학생의 교육요구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대안마련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요구도를 반영한 역할극 중심의 의사소통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의사소통증진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후 및 졸업 후 의사소통능력, 태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1] Ji. E. J, Bang, M. R, Jeon. H. J,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571-579,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571

[2] Jung. M. 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r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ong-Ang University, Seoul, 2014.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standard for education of Korea(the course of the nursing bachelor's degre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2.

[4] Bong. E. J,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were utilized group activ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10, pp.394-402,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0.394

[5] Park. J. W, Choi. M. S,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351-360, 2009.

[6] Song. E. J,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student nurse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3, No. 3, pp.467-473, 2006.

[7] Idczak. S. E, "I am a nurse: Nursing students learn the art and science of nurs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 28, No. 2, pp.66-71, 2007.

[8] Shin. K. A, Lee. E. S,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149-158,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149

[9] Kim. H. S, Park. W. J, Ha. Tae. Hee,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229-237, 2006.

[10] Kim. S. H, "The relationship between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of psychiatric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06.

[11] Hyun. M. Y, "The communication training needs of nurses in the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1, No. 4, pp.443-451, 2002.

[12] Cho. Y. H, "Development and effects of team- based learning program on enha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Kwang- Ju, 2014.

[13] Kim. H. M,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4, pp.399-408, 2009.

[14] Oh. Y. J,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2008.

[15] Kim, Y. H, Jung, J. S. Lee. J. K, Lee. Y. J, "An analysis on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 of core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gy,* Vol. 22, No. 4, pp.1-20, 2010.

[16] Faul. F, Erdfelder. E, Lang. A. G, Buchner. A,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17] Park. E. Y, "Effects of family nursing practicum using role play o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family nursing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656- 662,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656

[18] Navaran. L,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Family Process*, Vol. 6, No. 2, pp.173-184, 1967.
DOI: http://dx.doi.org/10.1111/j.1545-5300.1967.00173.x

[19] Choi. E. Y, "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skills group on high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04.

[20] Ayres. H. W,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USA, 2005.

[21] Park. S. Y, Kweon. Y. R, "The effect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training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1, No. 1, pp.79-88,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1.79

[22] Lee. J. Y, Lee. Y. M, Park. S. Y, Lee. M. J, Jung. Y. Hee,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606-616,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606

[23] Won. J. S, Shin. H. S, "The effect of small group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the competency of communication and the human relation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4, No. 2, pp.60- 66, 2008.

[24] Lee. O. S, Gu. M. O,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2749-275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25] Dawood, Eman, "Nursing students' perspective about role-play as a teaching strategy in psychiatric nursing",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Vol. 4, No. 4, pp.38-48, 2013.

[26] Kim. S. A, Park. J. H, Lee. H. H, "The develop ment

and effects of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4, No. 3, pp.412-420, 2004.

[27] Constantine. M. G, "Multiculturally-focused counseling supervision: Its Relationship to trainees' multicultural counseling self-efficacy", *The Clinical Supervisor,* Vol. 20, No. 1, pp.87-98, 2001.
DOI: http://dx.doi.org/10.1300/J001v20n01_07

[28] Park. Y. S, Lim. S. B, Kim. H. S, "The effects of reinforced self-understanding in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361-368, 2009.

조 인 영(In Young Cho) **[정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 중
- 2013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보건교육